



## 제주올레 6코스와 체르마트 5개 호수길 우정의길 기념행사 한국인들의 꾸준한 올레길 사랑 체르마트로 이어져

제주 올레 6코스와 스위스 체르마트 5개 호수길의 우정의길 기념행사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 크리스토프 뷔르긴(Christoph Bürgin) 체르마트 시장, 박정하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주 올레 6코스 시작점에서 가졌다.

제주올레와 체르마트간 우정의길 협약은 지난 2011년에 맺어졌으며, 올해 7월 제주올레의 간세가 체르마트 5개 호수길에 그리고 10월 체르마트의 사인물이 제주올레 6코스에 각각 설치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함께 참석한 체르마트관광청 부사장 마크 쇼이러 (Marc Scheurer)는 “최근들어 체르마트를 찾는 한국 여행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정의길을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명봉 마테호른(Matterhorn)을 볼 수 있는 알프스 청정 마을로 더 유명한 체르마트는 최근 우리나라 TV 프로그램과 신문, 잡지에도 자주 소개되면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전년대비 50% 이상의 한국인 투숙객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르마트를 찾는 한국 여행자들 중 많은 수가 미디어에 소개되었던 마테호른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에 매료되어 하이킹을 즐기거나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뷔르긴 체르마트 시장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액티브한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내년(2015)은 영국 등반가, 워퍼(Edward Whymper)에 의한 마테호른 최초 정복 15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오는 여행자들을 위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제주올레가 우정의 길이라는 뜻 깊은 민간 교류를 통해 제주를 널리 알려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제주올레와 스위스 체르마트가 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만남의 계기로 제주와 체르마트 상호간의 협력 증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스위스 체르마트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했듯, 오늘 기념식을 통해 제주의 멋진 풍광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길을 나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자리로, 앞으로도 서로의 지역을 알리고 도보여행 문화를 발전시켜가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김지인 소장은 “체르마트의 한국인 투숙객 급성장은 그 동안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스위스의 여행지를 다각화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 본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분천역과 체르마트역이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이어, 올해는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분천역과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고, 코레일과 마테호른 고타르드 반(Matterhorn Gotthard Bahn)이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체르마트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최근들어 더욱 돈독해졌다. 체르마트에서 열린 민속 씨름 대회에 우리나라 씨름 대표선수단이 초청받기도 했다. 한국인들이



체르마트에서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여행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이번 성과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스위스 체르마트의 5개 호수길은 마테호른 주변에 위치한 5개 호수를 따라 걸으면서 호수 위에 비치는 웅장한 알프스 영봉 마테호른의 다채로운 모습을 감상하며 체험하는 길이다.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호수를 배경으로 한 마테호른과 호수에 비친 마테호른 2개의 모습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 사진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길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우정의 길 협약을 맺는 제주올레 6코스는 쇠소깍에서 서귀포시-외돌개로 이어진 명품 바다길로 계곡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쇠소깍의 절경과 평화롭게 펼쳐진 바다를 중심으로 이어진 바다길 하이킹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제주한바퀴를 돌면 425km이고, 체르마트 하이킹 코스는 한 지역 기준 스위스 최장 길이인 420km로, 두 길이 비슷한 거리라는 공통점도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  
                          김현주 차장       010-9004-8677  
                          박윤정 과장       010-3361-7242